

2018년 8월 29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기업 이슈로 강보합권 유지 므누신, “EU와 중국과 협상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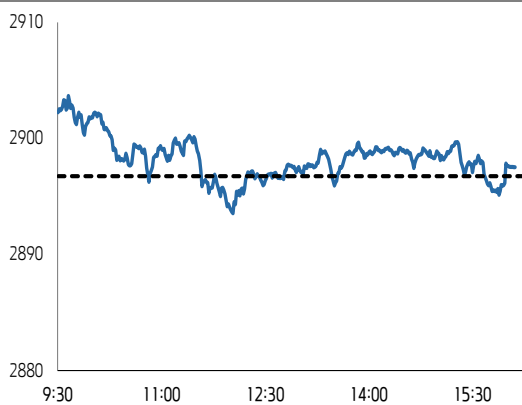
쉬어간 하루

미 증시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장중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잠시 쉬어가며 보합권 등락.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므누신 재무장관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막지는 못함. 특히 에너지와 소재업종이 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부진. 반면, 일부 기술주가 상승하는 등 개별 기업 및 업종 이슈에 따라 변화한 하루(다우 +0.06%, 나스닥 +0.15%, S&P500 +0.03%, 러셀 2000 +0.00%)

미 증시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는 등 잠시 쉬어가는 모습. 특히 일부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중소형주가 부진하는 등 하락업종이 많았던 점을 감안 투자심리는 위축. 개별 기업을 살펴보면 애플(+0.81%)이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쉘컴(+3.62%)도 51 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 이에 힘입어 일부 반도체 업종도 동반 상승하는 등 개별 기업 이슈가 미 증시 변화 요인으로 작용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은 “캐나다와의 무역분쟁은 협상을 통해 곧 타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 31 일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캐나다와의 협상도 완료해야 됨. 이는 미국의 무역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임. 더불어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EU 와도 무역협상 관련 대화를 진행 중” 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 아니다” 라고 언급. 그러나 “구조적인 이유든 위안화 가치를 낮게 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다” 라고 주장. 결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언급. 이러한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은 차익실현 매물을 이겨내며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한 요인 중 하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03.12	+0.17	홍콩항셱	28,351.62	+0.28
KOSDAQ	798.17	-0.36	영국	7,617.22	+0.52
DOW	26,064.02	+0.06	독일	12,527.42	-0.09
NASDAQ	8,030.04	+0.15	프랑스	5,484.99	+0.11
S&P 500	2,897.52	+0.03	스페인	9,606.50	-0.55
상하이종합	2,777.98	-0.10	그리스	737.47	+0.16
일본	22,813.47	+0.06	이탈리아	20,620.05	-0.8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상승세 지속

애플(+0.81%)은 9월에 발표되는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큐로브(+0.30%) 등 일부 부품주도 동반 상승 했다. 퀄컴(+3.62%)은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 했다.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0.52%), 인텔(+0.46%), 브로드컴(+0.69%) 등 반도체칩 제조업체들도 동반 상승 했다. 델타에어라인(+1.80%), 아메리칸에어라인(+2.96%) 등 항공주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엑손모빌(-0.15%), 셰브론(-0.415), 코노코필립스(-1.0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알파벳(-0.83%), 페이스북(-0.68%), 트위터(-1.11%) 등 인터넷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뉴스를 검색하니 96%가 가짜뉴스 관련 매체 기사들만 보여주고 있어 위험하다” 라고 언급하며 “구글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69%	대형 가치주 ETF	-0.06%
에너지섹터 ETF	-0.87%	중형 가치주 ETF	+0.11%
소매업체 ETF	+0.48%	소형 가치주 ETF	-0.07%
금융섹터 ETF	-0.10%	배당주 ETF	-0.16%
기술섹터 ETF	+0.17%	변동성 ETF	0.0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2%	대형 성장주 ETF	+0.13%
인터넷업체 ETF	+0.14%	중형 성장주 ETF	+0.24%
리츠업체 ETF	+1.22%	소형 성장주 ETF	+0.15%
주택건설업체 ETF	-0.44%	신흥국 고배당 ETF	-0.38%
바이오섹터 ETF	+0.49%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5%
헬스케어 ETF	+0.05%	하이일드 ETF	0.00%
곡물 ETF	-1.63%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0.38%	Long/short ETF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9.94	-0.45%	+1.75%	-3.38%
소재	374.55	-0.35%	+1.18%	+0.05%
산업재	650.04	-0.12%	+0.22%	+0.66%
경기소비재	921.11	+0.18%	+1.41%	+4.06%
필수소비재	552.56	-0.32%	-1.26%	+0.54%
헬스케어	1,065.54	+0.09%	+0.90%	+3.61%
금융	473.55	-0.10%	+0.74%	+2.09%
IT	1,316.12	+0.21%	+2.97%	+5.84%
통신	156.43	-0.48%	-1.59%	+4.57%
유틸리티	268.98	-0.21%	-1.20%	+0.32%
부동산	208.98	+1.19%	+0.88%	+2.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10% MSCI 신흥 지수도 0.3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601 계약)에 힘입어 0.20pt 상승한 297.6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7.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으나,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보험권을 유지했다. 한국 증시도 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 하락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는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이어지고 있어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22~23 일 미-중 간의 무역협상 이후 중국 상무부는 '대화 지속'을 발표 했으나, 미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보도를 했었다. 이 여파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언급된 므누신 장관의 '대화 기초 유지' 발언은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이슈 완화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전일에 이어 개별 기업별 이슈에 따라 등락이 이어지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2000 년 이후 최고치 경신

미국 8 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27.9) 보다 상승한 133.4 로 발표되었다. 2000 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지표 결과 단기적으로 미국의 소비 증가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8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20) 보다 상승한 24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2→25), 고용지수(22→25) 등이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한편, 국제사업재판소가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미국-이란 분쟁 이슈가 부각된 점은 하락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지수는 전일 멕시코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파로 하락했다.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므누신 재무장관이 캐나다와도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분쟁 해소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소비자신뢰지수가 개선되는 등 경제지표가 우호적으로 발표된 점은 달러 약세폭을 제한했다.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2.16%,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 대비 1.26%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 다만, 독일이 터키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을 고려한다고 발표한 점은 터키 이슈 확산을 제한 했다.

국채금리는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등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독일이 터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고려한다고 발표하는 등 터키 우려감을 완화시킨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개월 평균(2.50 배)과 비슷한 2.49 배를 기록했다.

금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개선 여파로 상승폭이 제한 되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1% 상승 했으나, 철근은 0.245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53	-0.49	+4.09	Dollar Index	94.714	-0.07	-0.57
브렌트유	75.95	-0.34	+4.57	EUR/USD	1.1693	+0.13	+1.05
금	1,214.40	-0.13	+1.20	USD/JPY	111.21	+0.12	+0.82
은	14.899	-0.49	+0.26	GBP/USD	1.2868	-0.19	-0.26
알루미늄	2,133.50	+1.84	+3.82	USD/CHF	0.9764	-0.36	-0.92
전기동	6,147.00	+0.69	+2.60	AUD/USD	0.7336	-0.20	-0.43
아연	2,540.00	+0.24	+6.83	USD/CAD	1.2934	-0.25	-0.79
옥수수	356.25	-1.45	-4.81	USD/BRL	4.1382	+1.38	+2.20
밀	523.25	+0.14	-4.47	USD/CNH	6.8006	+0.10	-0.41
대두	833.25	-1.77	-5.95	USD/KRW	1110.00	-0.34	-0.75
커피	103.05	-2.55	+1.23	USD/KRW NDF1M	1107.75	-0.09	-0.7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80	+3.45	+5.06	스페인	1.452	+4.60	+8.80
한국	2.357	-0.70	-2.00	포르투갈	1.869	+4.10	+10.40
일본	0.098	+0.10	+1.20	그리스	4.154	-1.00	-4.70
독일	0.380	+0.40	+4.90	이탈리아	3.182	+3.20	+19.90